

무도장 하이그로시 기술 적용 고감성  
크래쉬패드 성형기술 개발

곽성복<sup>†</sup>, 이재용, 김승호, 황민혁<sup>1</sup>, 소상우<sup>2</sup>

덕양산업; <sup>1</sup>주은테크; <sup>2</sup>울산테크노파크

(sbkwak@dyauto.kr<sup>†</sup>)

선진국 자동차와의 기본 성능이 유사해지고 생산기술이 점차 보편화되어 생산성, 신뢰성 및 기능성을 추구해오던 방식으로부터 외부와의 연결성, 쾌적성, 편리성, 다양성 등을 고려한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성 공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술 차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선진국 대비 차세대 기술의 개발시기가 늦고 차량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감성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제품이 부족한 실정이며 선진국에서는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켜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